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시사점¹⁾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New Middle-aged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임정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구 감소 시대에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수준과 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전국 50~69세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사회참여 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참여에 대한 신중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신중년이 노후에 어떤 사회참여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과 추가로 검토(연구)해야 할 사항을 고찰하였다.

1. 들어가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총인구 감소 시기도 2029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신중년(5060세대)의 재취업, 사회참여 활성화는 인구 감소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생산가능인구 부족, 지역사회 전달체계 재건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신중년은 인구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자 정책의 대상으로서 그들의

1) 이 글은 황남희 외(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의 6장 2절 ‘사회참여 실태와 욕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증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노년기에 이루어지는 사회참여 활동은 노인의 자살 생각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묘숙, 2012; 김예성·하용용, 2015). 여기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높아지므로(김예성, 하용용, 2015) 사회참여 활성화는 신증년의 건강 수준 향상과 우울 및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낮은 건강 수준, 우울, 자살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체력 증진, 사회 교류(사회 기여)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구 감소 시대에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증년의 욕구(need)에 적합한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증년의 사회참여 활동 수준과 인식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9년 전국 50~69세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신증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증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근거해 신증년의 사회참여 수준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증년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과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참여에 대한 신증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어서 신증년의 사회참여 실태를 분석한다. 노후에 어떤 사회참여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지도

살펴보았다.

2. 사회참여 활동이란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 교류를 형성하는 활동으로, 타인과 자원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Levasseur et al., 2011; Richard et al., 2013). 광의의 사회참여 활동은 취업활동을 포함한 여기활동, 종교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지만, 이 글에서는 취업활동을 제외한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활동, 친목단체 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에 집중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신증년의 취업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황남희 외, 2019) '노후에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을 묻는 질문이나 고찰 부분에서는 소득활동을 포함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3. 신증년의 현재 및 노후 삶에서의 사회참여의 중요도

신증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신체,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질병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들이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 제공의 주체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증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중년은 자신의 현재 삶 혹은 미래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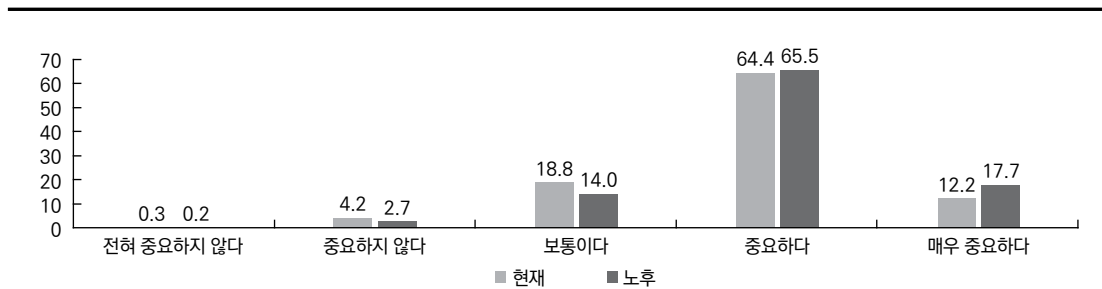
50~69세의 신중년에게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물어보았다. 신중년의 76.6%는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83.2%는 노후 삶에서도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그림 1). 반면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

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5%,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신중년은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2).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77.6%), 부부 가구(78.1%)

그림 1. 신중년의 현재 및 노후 삶에서의 사회참여에 대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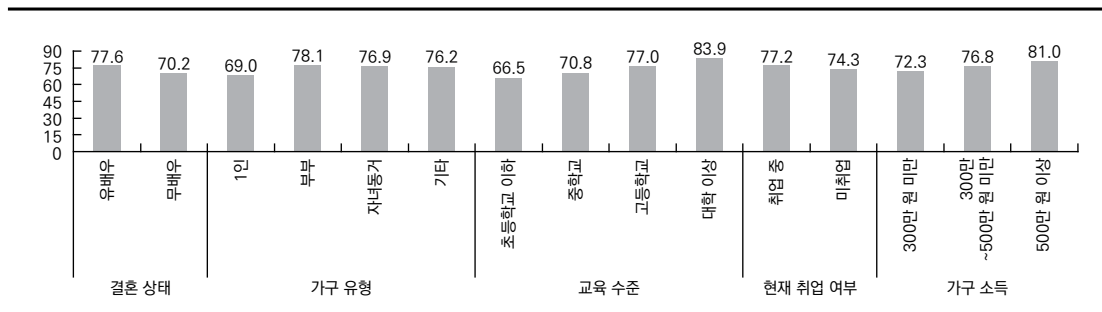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70 (표 6-25)를 참고로 재구성.

그림 2. 현재 삶에서의 사회참여에 대한 중요도

(단위: %)



주: 현재의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만을 그림에 표시하였음.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70 (표 6-25)를 참고로 재구성.

또는 자녀 동거 가구(76.9%)인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대학 이상 83.9%), 현재 취업 중인 경우(77.2%),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500만 원 이상 81.0%) 현재의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노후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에 대한 생각도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중년이 처한 상태, 즉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다만 1인 가구로 구성된 경우, 가구 소득이 낮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현재 미취업 상태인 신중년이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를 왜 낮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생계활동 때문에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에 귀속된 집단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회참여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1인 가구나 저소득 가구 등은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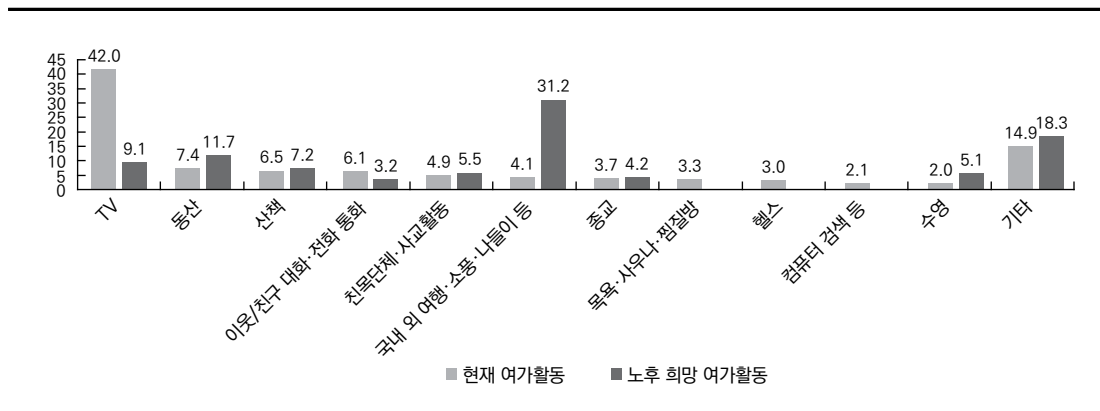
4.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

앞에서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신중년의 76.6%가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신중년은 실제로 사회참여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절에서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를 여가활동, 자원봉사 및 평생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신중년이 최근 1개월간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은 'TV 시청'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등산' 7.4%, '산책' 6.5%,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 6.1%, '친목단체·사교활동' 4.9%,

그림 3. 현재의 여가활동과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활동

(단위: %)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61의 <표 6-21>과 p. 167의 <표 6-24>를 참고로 재구성.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 4.1% 순이었다 (그림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신중년의 여가활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읍면 지역, 여성,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의 특성을 지닌 신중년은 ‘TV 시청’ 비율이 높았다. 여가활동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이 64.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 1회(20.8%)’, ‘월 1회(6.2%)’, ‘2주에 1회(4.9%)’, ‘월 1회 미만(3.3%)’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혼자 참여하는 신중년은 36.4%이며, 친구와 함께하는 신중년은 31.3%, 가족과 함께하는 신중년은 28.0%, 동호회 활동을 하는 신중년은 4.2%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여가활동 참여 빈도와 동반자

(단위: %)

참여 빈도					동반자				
주 2회 이상	주 1회	2주에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혼자서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기타
64.8	20.8	4.9	6.2	3.3	36.4	31.3	28.0	4.2	0.1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164-165의 <표 6-22>와 <표 6-23>을 참고로 재구성.

신중년이 노후에 가장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은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31.2%), 등산(11.7%), TV 시청(9.1%), 산책(7.2%), 친목단체·사교활동(5.5%), 수영(5.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중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비율(순위)과 약간 차이가 있다(그림 3). 신중년은 여가활동으로 현재 ‘TV 시청’(42.0%)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반면, 노후에는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31.2%)을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했다. 신중년은 현재에 비해 노후에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며 그 외에도 등산, TV 시청, 산책 등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노후 여가활동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TV 시청’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서,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TV 시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읍면 지역,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 집단에 속한 신중년은 현재나 노후에나 ‘TV 시청’과 같은 정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목할

표 2.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참여 의향

(단위: %)

참여 경험					참여 의향			
현재 참여	자원봉사단체 소속	개인	과거 참여, 현재 미참여	평생 미참여	참여하고 싶다	단체 소속	단체 비소속	참여하고 싶지 않다
16.3	11.4	4.9	20.6	63.1	45.8	24.3	21.5	54.2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172-173의 <표 6-26>과 <표 6-27>을 참고로 재구성.

필요가 있다.

신중년의 자원봉사활동(사회공헌활동 포함) 참여 경험을 살펴보자. 신중년의 16.3%가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20.6%는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평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3.1%로 신중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노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신중년의 45.8%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54.2%나 된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24.3%가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싶다고 하였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은 21.5%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중년의 54.2%

가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자원봉사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높아진다는 점(이현기, 2009; 신원우, 2011)에서 신중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성공적 노화(active aging)의 지표로도 활용된다. 신중년이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대학, 도서관, 사이버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중년의 사회참여활동 수준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활동의 실태를 파악한다. 신중년에게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85.2%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9.7%는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

표 3. 평생교육 활동 참여 경험과 참여 의향

(단위: %)

참여 경험			참여 의향	
현재 참여	과거 참여, 현재 미참여	평생 미참여	예	아니요
5.1	9.7	85.2	48.8	51.2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175-176의 <표 6-28>과 <표 6-29>를 참고로 재구성.

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은 5.1%에 불과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 보면 지역, 성별,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 경험에 차이가 나타난다. 읍면 지역, 남성, 1인 가구, 낮은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저소득 가구의 특성을 지닌 신중년은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중년의 48.8%는 노후에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었지만 51.2%는 노후에도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평생교육은 신중년의 숙련도를 높여 재취업을 유리하게 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므로, 현재 신중년의 평생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노후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

해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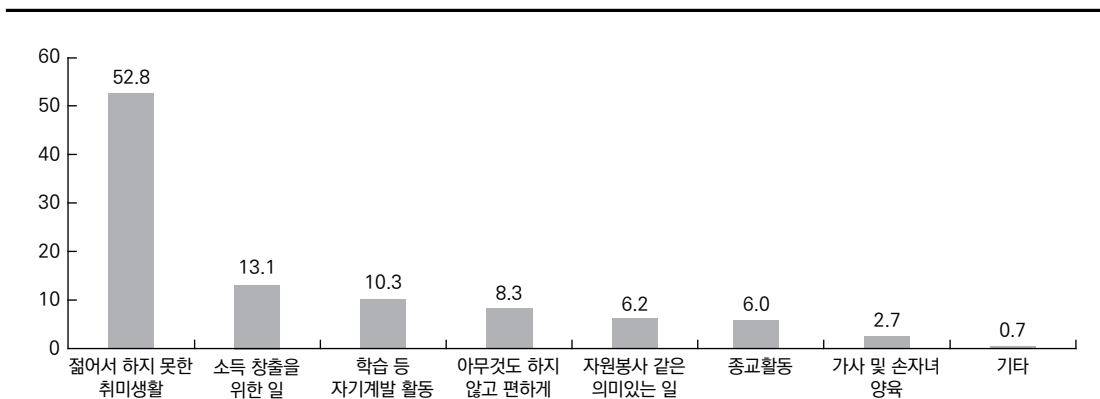
5. 신중년이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중년은 여가활동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활동 등의 사회 참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이나 평생교육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중년이 노후에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으로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52.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외에 ‘소득 창출을 위한 일’ 13.1%,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 10.3%,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 6.2%, ‘종교활동’ 6.0%, ‘가사 및 손자녀 양육’ 2.7%, ‘기타’ 0.7%

그림 4. 노후에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

(단위: %)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179-180의 (표 6-30)을 참고로 재구성.

‘종교활동’ 6.0%, ‘가사 및 손자녀 양육’ 2.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응답한 신중년도 8.3%였다. 즉 사회참여 활동을 한다면 대부분 취미생활, 소득 창출을 위한 일, 자기계발,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지 않고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다.

6. 나가며

이 글에서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과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중년의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신중년의 76.6%는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83.2%는 노후 삶에서도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신중년은 현재보다 노후의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저소득 가구, 낮은 교육 수준, 미취업 상태인 신중년이 그렇지 않은 신중년보다 현재 또는 노후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1인 가구, 저소득 가구, 낮은 교육 수준, 현재 미취업 상태인 신중년에는 현재 또는 노후 삶에서의 생계유지 때문에 사회참여 활동보다는 취

업활동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1인 가구, 저소득 가구, 미취업 상태인 신중년이 생계활동 때문에 사회참여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에게는 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사회참여(공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버인재센터 등에 신중년의 재능과 기술을 등록해 놓으면 주변 이웃들의 필요에 따라 이들의 기술과 재능을 사용(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활동 희망 여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를 여가활동, 자원봉사 및 평생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신중년이 최근 1개월간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은 ‘TV 시청’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등산’, ‘산책’,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 등이었다.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은 4.1%에 불과했다. 특히 읍면 지역, 여성,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의 신중년은 ‘TV 시청’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TV 시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 집단은 ‘TV 시청’ 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거리, 물리적 환경, 비용 등) 등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 이는 노후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을 꼽은 신중년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읍면 지역, 여성,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 가구의 특성을 지닌 신중년의

여가활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들 집단의 기호에 맞게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사회참여 정책들이 일자리 중심의 활동들이었다면, 향후에는 다양한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활동으로 사회활동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신중년이 돌봄 또는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활약할 수 있도록 신중년 사회활동 클럽, 지역돌봄지킴이 등 연령 구분 없는 다양한 사회활동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신중년의 63.1%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 54.2%의 신중년은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사회참여 활동이 현재나 노후의 삶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신중년 자원봉사활동 유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욕구 기반 프로그램 개발에도 중요하다. 어떠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신중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행위 간 불일치가 좁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실제 또는 노후의 참여 행위로 귀결되지 않는 이유를 도출할 때, 더욱 효과적인 사회참여 활성화 대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신중년의 85.2%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은 신중년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으로 재취업

에 유용할 뿐 아니라 성공적 노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중년은 왜 평생교육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지, 그들이 노후에 평생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읍면 지역, 남성, 1인 가구, 낮은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저소득 가구의 신중년은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들 집단에 속한 신중년들이 어떤 방해 요소 때문에 사회참여 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살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적 제약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온라인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한 필요하다. 재취업, 전직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중년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이 신중년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이것이 재취업 또는 전직, 더 나아가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신중년의 평생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신중년이 노후에 하고자 하는 사회참여 활동으로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 ‘소득 창출을 위한 일’, ‘학습 등 자기개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냄’, ‘자원봉사 활동’, ‘종교활동’,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이었다. 따라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취미, 소득, 자기계발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참여 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참여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 등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나 전달체계 구축은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더욱더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신중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회참여 정책들을 재정립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의 다양화 역시 필요하다. 소득 창출과 연계된 사회참여 활동의 예로, 최근 일본의 기업들은 퇴직한 신중년을 단시간 정사원으로 재고용하여 출산휴가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근무보다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신중년의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화된 것으로, 정사원 고용을 통해 신중년의 업무 책임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여성 인력의 지속적인 커리어 축적을 위한 보충적 역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 교토시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신중년이 주도하여 장수 운동, 양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중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보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중년의 대다수가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가활동을 제외한 자원봉사, 평생교육 참여율은 낮았다. 게다가 노후의 사회참여 활동 의향 또한 낮게 나타났다. 사회참여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왜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향후에는 왜 참여할 의향이 없는지, 인식과 행위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예성, 하용용. (2015).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 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344-374.
- 신원우. (2011).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135-163.
- 이묘숙. (201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3), 231-259.
- 이현기. (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35-364.
-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vasseur, M., Gauvin, L., Richard, L., Kestens, Y., Daniel, M., & Payette, H. (2011).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proximity to neighborhood resources, disability,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results from the VoisiNuAge stud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92, 1979-1986.

Richard, L., Gauvin, L., Kestens, Y., Shatenstein, B., Payette, H., Daniel, M., ... Mercille, G. (2013). Neighborhood resources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older adults results from the VoisiNuage Study.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5, 296-318.